

통일 칼럼

핵 유지하는 김정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를 통해 핵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국제 사회로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외톨이'에서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관계 강화로 이익을 얻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당 창건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 비(非)서방 고위 인사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통 시슬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7일 회담하고, 9일에는 베트남 최고지도자 또 람 공산당 서기장, 중국의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 각각 만났다.

10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을 접견했다.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일행도 10일 방북했는데,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방북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열병식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 양옆으로 중국 리 총리, 베트남공산



정복규

논설위원

당 람 서기장이 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람 서기장 왼쪽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한 달 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열병식을 내려다보는 탠안먼 망루 중앙에 나란히 서면서 '북중러 3각 연대'를 확인했다.

북한은 이처럼 작국 고위급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병식 무대에 핵 투발 수단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형을 올려 미국을 겨냥한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열병식을 지켜본 중국, 러시아 등 비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암묵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최대 정당 통합러시아당은 열병식에 앞선 9일 조선노동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와 개발을 용인했다.

베트남 측도 이번 방북에 관 반 장 국방부 장관을 대동했으며 10일 외무·국방·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문들을 조인했다. 양국 간 국방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감을 표출했다. 열병식 전날인 9일 전야제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열병식 당일 연설에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앞으로도 혁명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라고 했다.

'패권'은 통상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는 표현인데,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을 견제하는 한 축을 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핵심 참모인 조용원 노동당 비서는 "우리 당은 정의를 사랑하고 우 리 위업을 지지하는 친선적인 벗들의 진실한 성원에서 큰 고무를 받고 있다"며 방북한 외빈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한 북한의 시선은 당분간 내부로 쏠릴 전망이다. 기존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 준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조전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독자제언

수확철 갓길 위험, 농기계-차량 '상생 운전' 필요

가을 수확철을 맞아 들녘은 풍요로움으로 물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로 안전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해가 짧아지면서 어둠 속에서도 수확 작업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고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갓길에 세워진 농기계를 갑작스럽게 마주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할 만한 위험한 순간이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도 야간에 콤팩트를 실은 트럭을 도로 갓길에 주차해 두었는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시체가 있었다. 커브길 등 시야가 제한된 구간에 주차된 농기계의 낮은 시인성이 이러한 야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농기계 관련 사고의 치사율이 높다는 통계는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에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일몰

이후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농기계 운전자들에게 반사판이나 경고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커브길이나 주요 도로변 등 위험 구간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농촌 지역 운전자들은 수확철에는 평소보다 갑작운행을 생활화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기계 운전자는 야간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도로에 농기계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농기계와 차량이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농촌의 현실에서 안전은 어느 한쪽의 주의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 운전'이야말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의 책임 있는 실천이 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롭고 안전한 수확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연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위대가 연방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설

제13회 중산문학상 김병호 시인

제13회 중산이문통문학상 수상자로 김병호 시인(64)이 최근 선정됐다. 중산이문통문학상운영위원회는 김병호 시인을 올해 중산이문통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상은 한국문학의 융성을 위해 헌신해온 문인을 대상으로, 작품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故) 이운룡 박사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심사위원을 맡은 김남곤·소재호 시인은 "김병호 시인은 시와 평론 양 분야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오며, 문학적 사유와 표현의 밀도를 높여온 작가"라며 "평론가로서의 비평적 시각, 교수로서의 후학 양성, 문학지 주간으로서의 저변 확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 문학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 문학적 성찰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의 행보가 한국문단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숙 중산이문통문학상 운영위원장(시인·문학평론가)은 "고 이운룡 박사의 뜻을 이어 받아,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문인을 발굴·시상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김남곤·소재호 시인, 백봉기 전북문인협회장, 역대 수상자와 원로 문인 등이 참석했다. 고 이운룡 시인의 작품 '성운(星雲)'과 김병호 시인의 시 '나라서적'이 낭송됐다.

한편 김병호 시인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월간문학> 신인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200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디지털 중독

마음먹고 책을 꺼냈지만, 이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사람이 있다. 짧은 영상부터 쇼핑까지 손가락이 멈출 틈이 없다. 이럴 때 한 번 쯤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디지털 중독이다.

거창한 결심 없이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명 디지털 '디톡스', '겉기'의 효과가 있다. 어느 대학생은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인스타그램에 뉴스, 쇼츠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집중해서 본다. 새벽을 넘어서 자게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그 다음 날을 보내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사 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디지털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

장을 받은 성인은 8명 중 1명 꼴이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가 어렵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가 중독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걷기 운동이 좋다.

않거나 누워 있으면 계속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는 게 힘들다.

빨리 걸으면 몸에 집중을 하고, 천천히 걸게 되면 명상을 하게 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개선되고 뇌 기능도 활성화

해 중독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 준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영상물질 분비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을 유지해야 디지털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